

국내 LPG 가격제도는 장기적으로 LPG 수입기지의 추가 건설로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공급의 경쟁성을 확보한후 LPG 가격을 연등제 또는 자유화할 계획이다.

1. '93년도 추진실적 및 개요

(1) LPG 가격조정
LPG 가격조정의 배경은 신경제계획의 석유류 특별소비세 인상계획에 따른 특별 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LNG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면서 LPG도 탄력세율 8%에서 기본세율 10%를 적용하므로써 석유류를 포함한 LPG 가격조정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가격조정요인으로는 국제 LPG가격이 1993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였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유통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충전소 및 판매소의 경영난 완화 및 유통과정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수수료의 인상이 필

요하였다. 부탄충전소 4.82원(7.7%), 판매소 13.0원(10.66%)을 인상하므로써 최종 소비자 가격은 프로판 일반용이 15원(3.26%)이 인상되었고, 부탄일반용은 종전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였다.

한편, 도시가스용 프로판가스의 가격은 LNG의 특별소비세 부과 등으로 공급가격의 인상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써 LPG를 원료로 하는 지방도시가스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일반용 프로판가스가 가격의 90% 수준에서 92.17%로 가격차이를 다소 축소하였다.

(2) LPG 수급 및 유통

가. LPG 수급

국내 LPG 수급은 1993년에도 1992년에 이어 국제 LPG 시장의 안정적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LPG 수입업체의 소요물량 확보 및 적기도입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부비축기지(L-1 기지)의 효과적인 활용등으로 수급상의 별 어려움이 없이 원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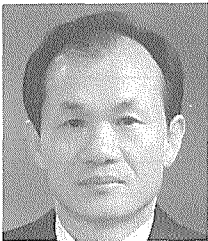
LPG 수요는 전년대비 8.9%(프로판 11.8%, 부탄 4.2%)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비료제조 및 석유화학부문에서 나프타원료를 대체하는 공업원료용 LPG의 수요가 정체되었고, 취사용보급의 한계·LNG 도시가스 공급확대등에 따라 가정 상업용 수요의 증가추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LPG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석유화학업체에서 부산물로 생산공급하던 LPG를 대부분 자체소비함으로써 국내생산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부터 장기계약위주의 수입이 전년대비 19.3%나 크게 증가하여 수입비중이 74%에 달하였다.

특히, 1993년 월동기 수급안정을 위해

'94년 석유정책방향 ③

'94년도 LPG산업 및 가스안전관리 정책방향



權泰潤
상공자원부
〈가스관리과장〉

요하였다.

가격조정의 방향은 LPG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4.2원/kg)은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고, 국제 LPG가격의 하락에 따른 인하요인(8.0원/kg)은 환율변동등을 감안하여 국내 기준가격을 인하하였으며, 유통단계의 수수료는 1992년 6월 가격조정 이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여 프로판 충전소 5.47원(6.7%),

여는 L-1 기지의 부탄여유시설에 수입사 부탄 45천톤을 하절기중 미리 위탁저장하여 활용케 하였고, 1993. 12월~1994. 2월중 2차베에 걸쳐 각 43천톤의 비축프로판을 계획방출하여 연안수송능력제고 및 수송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나. LPG 유통

1993년도엔 충전소가 용기의 개채 및 재검사를 전담하고, 소비자 용기를 상시 일정금액(17천원/20kg 용량 용기)으로 매입하여 주며, 신규소비자에게는 용기를 공장도가격수준으로 공급하는 용기관리일원화제도가 정착되어가는 한해였다. 아직도 일부업소에서 동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과 실시미흡으로 인하여 간간히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과거 소비자 보호기구등을 통한 잦은 민원제기, 용기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을 둘러싼 충전업체와 판매업체간의 대립등이 거의 해소된 점은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LPG시장은 수입 2개사의 과점구조이고 수입기지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렵고 수출입의 가격탄력성도 거의 없다.

또한, LPG 유통업체가 LNG등 타 연료와 경쟁력을 유지하며 적절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사용편의성 제고 및 안전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日本현지시찰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LPG 산업의 장래를 밝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가스안전관리

가. 검사방법 및 기술기준 보장

설치된지 오래되고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이 안고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업체의 정기보수기간에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하매설 배관이나 단열재를 표면에 입히는 시설의 경우 완공후에는 용접 및 부식방지시설설치 상태등에 대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993년 12월 27일 고압가스안전관

가격조정 내용

수입사(정유사) 판매가격

(단위 : 원/kg)

	공 장 도 가 격	제 세			세 후 가 격	
		특 소 세	부 가 세	합		
프 로 판 일 반 용	현 행	198.66	15.89	21.46	37.35	236.01
	조 정	190.66	19.07	20.97	40.04	230.70
프 로 판 도시가스용	현 행	156.57	12.52	16.90	29.42	185.89
	조 정	153.63	15.36	16.90	32.26	185.89
부 탄 일 반 용	현 행	198.18	15.85	21.40	37.25	235.43
	조 정	190.18	19.02	20.92	39.94	230.12

충전소 및 판매소 가격

(단위 : 원/kg)

	종 전 소	총 전 소				판 매 소			
		마 진	부 가 세	합	가 격	마 진	부 가 세	합	가 격
프 로 판 일 반 용	현 행	81.65	8.17	89.82	325.83	121.97	12.20	134.17	460.00
	조 정	87.12	8.71	95.83	326.53	134.97	13.50	148.47	475.00
부 탄 일 반 용	현 행	62.34	6.23	68.57	304.00				
	조 정	67.16	6.72	73.88	304.00				

리법을 개정 공포 하였다.

이밖에도 특정설비 제조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관한 기준 배관의 전기방식 조치기준,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압력용기재검사 기준 등 가스안전관련 15개 고시를 개정 보완하였다.

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상공자원부, 시·도,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복합상가, LPG 충전소등 가스취약시설 22,00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6,700건의 크고작은 미비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스안전기관인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학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일반가스제조 및 판매시설등 12,000여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하여 시설이 미비한 1,600개 업소를 시설개선 조치하였다.

다. 지속적인 교육·홍보

가스기기의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부 440,0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공사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7,000명,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19,000명등 전문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심도있게 실시되었다.

또한 가스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등 매스컴, 유료광고 1,600여회, 홍보물 85만부 제작배포 및 분기1회 반상회보 게

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 '94년도 정책방향

(1) LPG 가격 및 기금관리

가. LPG 가격관리

국내 LPG시장은 2개 수입사가 수요의 70%이상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과점구조이고 수입기지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출입의 가격탄력성도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유통구조는 충전소 및 판매소의 허가에 따른 지역적 독점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와 배달문제로 소비자가 공급자 선택에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국내 LPG 시장의 특성과 국제 LPG가격의 결정구조상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매월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격을 공시하므로 가격 변동방향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의 수급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가격은 안정되고 LP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가격은 매월 조정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자유화의 전단계로서 신경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유가연동제 대상에서 LPG는 제외하였다.

국내 LPG 가격제도의 개선방향은 단기

**향후 국내 LPG
가격제도는 장기적으로
LPG 수입기지의
추가건설로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공급의 경쟁성을
확보한후 LPG가격의
연동제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93년도 LPG 수급실적 (잠정)

		프로판 / 전년대비 %		부 탄 / 전년대비 %		합 / 전년대비 %	
수	요	3,188	11.8	1,849	4.2	5,037	8.9
(공업원료용)		(148)	(-)	(488)	(Δ1.2)	(636)	(Δ0.9)
공	급	3,224	13.0	1,948	9.0	5,172	11.5
-	생 산	394	Δ3.7	971	Δ6.5	1,365	Δ5.7
-	수 입	2,830	15.8	977	30.6	3,807	19.3
(수입비중 %)		(88)		(50)		(74)	
기	말 재 고	227	19.5	152	83.1	379	38.8

적으로 유가연동제 실시와 석유사업기금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가완충기능의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LPG 수입기지의 추가건설로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공급의 경쟁성을 확보한 후 LPG 가격의 연동제 또는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유통단계에서 안전 등 서비스의 차별화 및 서비스에 따른 가격을 자유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 가스안전관리기금 운용

가스안전관리기금 운용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사업 예산중 검사 및 교육 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비용은 보조하되, 지원규모가 기금의 이자수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92억원으로 조정·지원하고 가스유통구조개선 등의 용자사업은 기금의 용도 및 가스안전관리업무와의 관련정도를 감안하여 용자대상업체 용자요구액을 전년도 용자실적과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350억원 규모로 조정하였다.

1993년도 경기침체에 따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고 용자대상업체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용

자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994년에는 용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용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가스기기 제조업체의 안전검사 및 연구개발장비 구입 등을 새로운 용자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용기구입 및 안전검사장비 구입 등을 계약서만으로 사전용자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전사업자의 자체검사장비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배관 지리정보시스템 설치비용을 용자대상에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용자실적 및 용자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용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LPG 수급 안정기반 조성

가. LPG 수입·비축시설의 확충

1994년도엔 LPG 수입 2社가 平澤 및 仁川지역에 총 410천톤 규모의 수입기지 시설건설을 착수하게 되는데 설계 및 부지 조성등에 모두 633억원(석유사업기금용자 162억원 포함)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 추진중인 L-1 기지시설 200천톤의 확충도 1997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게 되면 1997년 이후에는 국내 LPG 비축목표인 정부비축 30일분 및 민간비축 15일분(운용재고

올해에 LPG 수입 2社가
平澤 및 仁川에 총
410천톤규모의 수입기지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94 가스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규 모		1993(계획)	1994(계획)	증 감
수 입	○ 전년도이월	91,562	109,143	17,581
	○ 징수	20,439	21,915	1,476
	○ 이자 수입	8,576	12,298	3,722
	○ 용자 상환	620	561	△59
	○ 안전 공사 보조	6,725	9,151	2,426
지 출	○ 유통구조 개선용자	34,000	35,000	1,000
	○ 차년도이월	80,472	99,766	19,294

별도)의 달성·유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부탄 수요확대방안의 다각적추진

국내 LPG 수급구조상의 프로판과 부탄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우선, 소비자가 직접 운반·연결하여 실내에서 사용하는 소형부탄용기(10kg 내외 용량)를 취사용 프로판용기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밸브 등 관련기자재의 개발 및 가스공급·사용상의 제도보완후 1994년 하반기 부터 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저감측면에서 도시지역의 산업용 연료가 경유·B-C유 등에서 청정연료인 부탄으로 대체되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업계 홍보등을 통해 유도하고 1993년 하반기 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여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LPG 경상용차 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상에 자동차충전소가 조기설치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을 펴 나갈 예정이다.

(3) LPG 유통구조의 현대화

가. LPG충전업계의 대외경쟁력 제고
UR 타결에 따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LPG 충전사업도 1997년부터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충전및
용기관리시설의
대형화·자동화를
촉진하고 대량수요처에
대한 소형저장탱크및
별크공급을 본격화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될 예정인바, 이에 대비하여 아직도 선진각국에 비해선 뒤떨어진 충전시설 및 유통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지원확대등으로 충전 및 용기관리시설의 대형화·자동화를 촉진하고, 대량 수요처에 대한 소형저장탱크 및 벌크로리에 의한 벌크공급을 본격화하며, 용기관리일원화제도의 완전한 정착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 및 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복수(TWIN) 용기설치에 의한
계획배달제 실시**

LPG 사용도중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3D 기피현상등으로 인한 판매소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가정에 복수용기를 설치, 계획 배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994년도에는 우선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복수용기설치에 의한 계획배달제를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 후 성공적인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시켜 나갈 예정이다.

LPG 수입·비축시설의 확충계획

	기	기		총		확충후 저장능력
		입지	저장능력	입지	저장능력	
민	湖油에너지	여천	152	인천	240	392
			- 프로판 83		- 프로판 200	- 프로판 283
간	油公가스	울산	- 부탄 69	평택	- 부탄 40	- 부탄 109
			270		170	440
			- 프로판 140		- 프로판 150	- 프로판 290
			- 부탄 130		- 부탄 20	- 부탄 150
			422		410	832
			- 프로판 223		- 프로판 350	- 프로판 573
			- 부탄 199		- 부탄 60	- 부탄 259
정 부	평택	160	평택	200	360	
		- 프로판 90		- 프로판 200	- 프로판 290	
(L - 1 기지)		- 부탄 70		- 부탄 -	- 부탄 70	

다. 수요자 밀집건물의 배관공급시설 유도

소비자편의 및 가스안전확보측면에서 공동주택등 다수의 수요자 밀집건물에 대하여는 개별용기사용대신 배관에 의한 일괄공급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수가 15가구를 초과하는 경우 용기집합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요자수가 15가구 이하이고 용기저장량 합계가 250kg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사용시설로서 배관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4) 가스안전관리

가. 가스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부착토록 하고, 가스공급시설상태를 전산화 또는 카드화하여 취약시설을 별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용기사용 공동주택등을 집단공급방법으로 개선·유도하기 위해 가스안전관리기금용자를 확대하고 신축공동주택의 가스배관설치제도화를 적극 추진해나가는 한편 가스시설의 자율안전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등급제로 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생략토록 하는 한편 사고빈발 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기금 용자중단등 제재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방법을 기간도래시마다 신청에 의해 검사하던 방법을 올해부터는 지역별 일제검사로 전환하는등 과도한 규제나 실현성이 미약한 규정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나.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LPG 경상용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고속도로상에 자동차 충전소가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다.**

건설부의 특별관리대상인 노후공동주택 181개단지에 대하여 시·도 및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1994년 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공자원부, 시·도, 가스 안전공사 합동으로 상·하반기로 제조·충전·저장 및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합상가 등 공동 사용시설에 대하여 1994년 1월부터 5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이내 시정사항을 통보한 후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 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시까지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나갈 계획이다.

다. 대규모 교육홍보 강화

국민들의 가스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올해는 10월을 가스안전강조의 달로 정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 시·도 및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과 함께 지역별 순회교육, 가스안전세미나 개최, 글짓기 대회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TV, 라디오등 유료광고 1,600회 이상, 반상회보 게재 6회 이상 스티카 800만부 제작 배포,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한 홍보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가스안전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소방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교육등에 가스안전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초·중·고생, 주부등을 상대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한편 법정교육 73,000명, 양성교육 6,500명등 전문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